

# 전남광주특별시, K-모빌리티 메가클러스터 비상

광주·전남 통합을 앞두고 지역 주력산업인 모빌리티 분야의 산업적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글로벌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모빌리티산업 육성 전략이 공개됐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원장 김성진)은 3일 진흥원 대강당에서 '광주전남 통합으로 여는 미래모빌리티 비전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한국자동차연구원 광주분원장과 최성진, 정장현 전남분원장, 지역 산·학·연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기존 광주의 첨단 자동차 제조, 인공지능(AI) 인프라와 전남의 넓은 물적 공간, 풍부한 에너지 인프라 등을 유기적으로 융합해 '미래모빌리티 글로벌 3강' 도약 청사진이 제시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성진 원장은 통합특별법에 명시된 399개 특례 중 모빌리티 산업을 혁신할 5대 핵심 전략을 중점적으로 밝혔다. 5대 특화 전략은 ▲모빌리티 신도시 적극 조성 ▲자율주행 모빌리티 육성 ▲미래항공 모빌리티 활성화 ▲주행 데이터 글로벌 허브 구축 ▲소재부품장비산업 고도화 등이다.

비전 발표에 이어 자유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강기정 시장은 "드론 등 미래항공 모빌리티의 미래" 등 산·학·연 관계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특별법에 담긴 8개의 핵심 특례에 대해 강조했다.

강 시장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자율주행차 시범 운영지구 지정 특례 등 그동안 우리가 하고 싶었고, 하려고 했던 핵심특례가 대거



## 광주시·모빌리티진흥원, 미래차산업 글로벌 3강 비전 제시

### 8대 핵심 특례 기반 '초광역 모빌리티 발전 로드맵' 발표

### 통합특별법에 담긴 모빌리티 분야 주요내용·추진전략 소개

답졌다"며 "이러한 특례는 광주전남이 미래모빌리티 글로벌 3강 도약에 있어 폭발적 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인공지능(AI)·에너지·제조를 '달리는 혁신'으로 연결해 미래모빌리티 산업혁신 성장벨트를 구현하겠다"며 "일하고 싶은 사람보다 일자리가 더 많은 부강한 광주전남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지역 부품기업 관계자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광주지역 한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지원 사업이 나누어 있어 혼선이 있었는데,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광역 단위의 대규모 실증 사업이 늘어난다는 소식에 기대가 크다"며 "특히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등 연계한 신사업 발굴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성진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은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정부로부터 약속받은 연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과감한 규제 특례는 우리 지역 기업들에게 전에 없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며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에너지·제조·AI가 하나로 결합된 초광역 혁신 메가클러스터를 완성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모빌리티 시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들은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날 수립된 기업들의 의견을 세부 실행 계획 반영하고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식 출범에 발맞춰 글로벌 혁신 생태계 조성을 차질 없이 이끌어갈 계획이다.

/전광훈 기자



## 광양경차청,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착공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 이하 광양경차청)은 5일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원에서 세풍일반산업단지(이하 세풍산업)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하고, 산업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도와 광양시 관계자, 유관기관, 입주기업 관계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식전행사와 결과보고, 기념사, 착공 퍼포먼스가 이어지며 세풍산업 조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와 의지를 모았다.

세풍산업 조성사업은 도로·용수·배수시설 등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구축해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광양만권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착공하는 공영개발은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원 133만㎡(40만 평) 규모로, 총사업비는 3,813억 원이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과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추진 기반을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세풍산단을 전남 남해안권의 육상·해상풍력, 태양광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RE100 이행이 가능한 친환경 산업단지로 조성해 미래첨단 국가산단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탄소중립 규범 강화로 주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거래·투자의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는 만큼, 친환경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갖춘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RE100 기반 산업단지는 수출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기업 유치 측면에서도 핵심 요건으로 평가된다.

광양/신선호 기자

## 전남도 X도공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무상 보급

### 전라남도 장애인 대상 3월 1일부터 톨게이트 방문 신청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3월 1일부터 전라남도와 협력하여 '장애인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무상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2015년부터 총 12,201대를 무상 보급해 왔으며, 올해에도 약 1,400대를 선착순으로 무상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및 본인 명의 차량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보호자 명의 차량을 소유한 전라남도 등록 장애인이다. 단말기 구입 비용은 한국도로공사, 전라남도, 단말기 판매업체가 공동으로 전액 부담한다.

자동차등록증, 감면카드(통합복지카드), 신분증을 지참하여 광주전남본부 관내 52개 톨게이트 사무실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문인식 단말기 신청 시, 지문 등록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관내 7개 지사(☎1588-2504) 또는 읍·면·동 행



정복지센터 방문해 추가 등록 후 이용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장애인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무상 보급을 통해 장애인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를 높이고 이동권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 광주시, 주택 미니태양광 설치비 80% 지원

### 4일부터 150세대 선착순 접수... 1억9000만원 투입

### 월 8000원 전기료 절감·탄소중립 실천 효과 기대

### 탄소중립포인트 1만원 신설·10세대 이상 추가 지원

지원 대상은 태양광발전이 가능한 광주 지역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다. 공동주택 거주자는 발코니 난간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300~1000W 규모의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일반 가구 기준 월 평균 약 45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는 900리터급 양면형 냉장고 1대의 월간 소비량에 해당하며, 매

달 약 8000원 상당의 전기요금 절감할 수 있다.

광주시는 특히 올해부터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일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시민 혜택을 더욱 확대했다.

참여가구가 미니태양광 설치 전 기후부의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에 가입하고 올해 신설된 가정용 배란다 태양광 설치 항목에 따라 1만원의 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신영길 기자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